

지역 매 아리

# “경기도 승진공무원 자체 교육 반대”

김제시 보건소 '찾아가는 금연버스' 운영

완주군, 쓰고 남은 폐농약 수거

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읍면을 통해 수거한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4월 18일까지 쓰다 남은 폐농약을 집중수거 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4월 18일까지 읍면을 통해 수거한다.

그동안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수거 했고, 미 개봉된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 했으나, 농가에서 개봉해 쓰고 남은 폐농약은 수거 및 처리체계 부재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완주군 농가에서는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농약별로 각각 밀봉하고 색상 및 고상으로 나누어 박스에 담은 후 박스 또한 밀봉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 수거된 폐농약은 농업기술센터에 인계 후, 폐농약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 할 예정이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이세자 과화영농팀장은 “ 폐농약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수질 등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특히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허용물질간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산물에 재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정치권과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국가 균형발전과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5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승진공무원 자체 교육 반대와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의 입장 발표'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북 혁신도시는 지역의 꿈과 희망이자 미래인 만큼 활성화를 가로막는 흡집 내기나 업무 축소 움직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이날 “경기도가 교육시기 지연과 인사업무 차질 등을 이유로 들어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극단적 지역주의 발상이자 반(反) 균형발전적 발상”이라며 “경기도는 자체 교육방향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또 “경기도의 자체 교육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5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승진공무원 자체 교육 반대와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의 입장 발표'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고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시책교육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교육의 중복에 따른 질 저하는 물론 국가예산 낭비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군수는 특히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침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이익과 편리만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권유로 운영해온 이서면

하숙마을과 전북 혁신도시 내 소상공인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극도로 지역주의적 발상”이라고 맹공격했다.

만약 경기도 교육생이 완주군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이탈할 경우 전북에서만 연간 18억 원이 증발하고, 하숙마을과 소상공인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는 등 심각한 지역경제 붕괴 현상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

려를 제기한 것이다.

박 군수는 이와 관련, “경기도의 자체 교육 방침에 단호히 반대하며, 전북도·정치권과 힘을 합쳐 9만5천 군민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행안부도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의 통합성, 소상공인 생계대책 차원에서 경기도 요구를 반박하는 특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전북 혁신도시 흔들기”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정치권과 힘을 합쳐 시행령 독소조항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현행 시행령 제10조 2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박 군수는 “나아가, 완주군에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을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을 집적화하는 ‘연수원 클러스터’ 조성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의 역할을 총결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5일 제12회 김제 모악산 축제를 맞이하여 전북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금연버스'를 운영, 축제장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과 금연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이동금연 클리닉을 실시하였다.

전북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버스'에서는 전문 금연상담사의 1대1 맞춤형 상담 진행으로 상담자 건강상태 분석을 위한 기초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등을 실시하여 흡연관련 질환 및 개인의 건강문제상담 등 모악산 축제장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담배는 피울 때마다 니코틴, 일산화탄소, 아세톤 등 나쁜 화학물질들이 폐를 통하여 혈관으로 운반돼 흡수되므로 암,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미세 먼지와 같은 수준으로 흡연자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김제시 보건소는 흡연자들의 흡연률을 낮추고 금연의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금연지원센터와 협력, 금연버스를 활용한 금연홍보 및 캠페인 실시와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합숙·비합숙형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황산면 '어르신 효 잔치'

사전 협의 의견 교환

김제시 황산면(면장 강감구)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이장단 및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120명이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어르신 효 잔치' 행사지침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자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황산면 어르신 효잔치는 지역발전협의 및 생활개선회 주최·주관으로 오는 12일 10시에 황산초등학교 강당에서 펼쳐지며 생활예술동호회 재능기부(하모니카 등 악기연주)를 시작으로 기념식에 이어 신나는 예술버스 문화공연과 함께 중식 나눔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신 관내 어르신 400여명을 모시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한방진료, 네일아트, 귀반사 등 전문봉사를 실시하며 이장단과 지역발전협의에서 어르신 효 잔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장 설치 및 중식배식 등 전반적인 행사에 차질 없이 준비 할 계획이다.

또한 이장협의에서는 회의를 마치고 금산사 일대에서 중식을 한 후 모악산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모악춘경 '김제모악산', 내년에 또 만나요!

김제 모악산축제 성황리 종료... 축제의 완성도 한 단계 격상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다양한 연령대 참여 프로그램 다채 등

'모악산, 상생·평화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3일간 모악산(금산사) 일원을 뜨겁게 달군 제12회 김제모악산축제가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로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며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특히 올해는 초·중·고교생이 참여하는 백일장·사생대회부터 명산 모악산 마실길 걷기 및 등반대회, 모악 역사·문화 탐방 등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그 어느 해 보다 온 시민이 다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제시 읍면동의 농특산물 판매관, 귀농귀촌 홍보관, 생활공예체험관 등의 부스를 통한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판매로 축제가 단순 낭비가 아니라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선보였던 여분주 교주의 항일운동 일대기를 그린 '분주' 등 모악산 창작뮤지컬 세 편과 동부권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모악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김제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아울러 김제 모악산을 널리 알리

기 위해 실시한 명산 모악산 마실길 걷기 및 등반대회는 모악산의 정기를 받고 싶은 700여명이 참가하여 시 산악회의 인솔 하에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진 예술을 사랑하는 김제시민의 질 높어진 공연도 축제의 완성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들고, 새로운 지역 축제 브랜드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김제모악산축제는 지역문화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4일 직업훈련 강의실에서 'SW코딩교육전문가(기초) 양성과정'의 개강식을 가졌다.

## 김제새일센터, SW코딩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는 지난 4일 직업훈련 강의실에서 'SW코딩교육전문가(기초)양성과정'의 개강식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SW코딩교육전문가(기초)양성과정”은 경력단절여성 16명을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204시간 동안 코딩개념과 이해, 코딩 알고리즘, 피지컬 컴퓨팅, 코딩프로젝트 작품구성과 발표 등 코딩지도사 자격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이번과정 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초

등학교 및 중학교 코딩교육과정(방과후 수업, 동아리 활동) 전문가로 취업 또는 개인 창업도 가능하다.

SW코딩교육전문가(기초)양성과정은 지난 2018년 20명의 교육생 중 19명이 수료하였고, 18명이 취업하여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미란 센터장은 “코딩지도자 양성과정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생의 소프트웨어 코딩을 책임지는 진정한 교육지도자를 양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